

휴대전화 OS, 자바를 잡아라!

이른 아침 눈 뜨고 일어나 변화된 것을 찾으려면, 그 중의 하나는 분명 모바일 기술의 발전일 것이다. 그만큼 시간을 넘어 차나에 가까울 만큼 모바일 분야는 진화 속도가 빠르다.

휴대전화가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 통화가 잘 터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 때도 있었다. 음성 통화의 품질이 곧 서비스 만족도의 기준이었던 것. 그러나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히 하나의 통신 기기의 의미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정보와 자신을 연결하는 하나의 접점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모바일에 정보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더해지고,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 것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서비스로 진화하면서 무선인터넷 서버에서 필요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동단말기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다.

최근 세계 무선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전세계 주요 단말 제조사들이 어떤 플랫폼 전략을 구사 하는가 이며, 두 번째는 전세계 주요 이동사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순히 서비스의 구성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서비스가 구현될 플랫폼에 대하여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계 1위 이동사인 보더폰을 필두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사들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동사들의 전략이 제조사에게 가져온 변화도 눈여겨볼만하다. 먼저 제조사가 자사 브랜드 가치를 감소시키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사들의 전략을 점차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또 이동사의 까다로운 플랫폼 규격을 구현하여 단말기를 공급하기 위해 기술규격 개발 및 탑재,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플랫폼 개발 전문업체에 아



김주혁 엑스씨이 대표이사

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 이동사와 단말제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모바일 시장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크게 자바(Java)와 브루(BREW)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자바시장의 점유율이 80%를 상회하므로 사실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화된 규격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기술요건을 갖춘 자바 기반 플랫폼의 급성장은 ARC 그

룹 2005년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2005년 브루 탑재 단말기 판매량은 3,500만대인 반면, 자바플랫폼 탑재 단말기 판매량은 약 2억6,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자바와 브루 탑재 단말기 판매량의 격차는 증가되는데 2010년에는 브루 탑재 단말 판매량은 자바 탑재 단말기 판매량 7억800만대의 약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CDMA 칩 기술을 보유한 퀄컴의 브루는 CDMA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계 80% 이상을 차지하는 GSM시장에서는 향후에 브루 플랫폼이 확산될 가망성이 희박하다. 이에 비해 자바로 일컫는 VM(Virtual Machine) 플랫폼은 GSM 시장과 CDMA 시장에 구분 없이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수십여개의 전문 자바 플랫폼사는 인수 및 합병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일본의 어플릭스(Aplix), 스위스의 에스머텍(Esmertec) 등 3~4개 업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주도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PC에서의 OS분야가 경쟁시기를 걸쳐 결국 MS의 윈도로 통일되다시피 한 것처럼 휴대전화의 자바 VM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글로벌마케팅에 소리가 없는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